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7/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대방광불화엄경 강설-81	무비	담앤북스
3	광명진언 기도법	일타,김현준 공저	효림
4	선문촬요(한국불교명저4)	경허선사/이철교	민족사
5	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정공	하늘북
6	휴휴선	월암	담앤북스
7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S(영어판)	편집부	조계종출판사
8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9	다람살라의 시간	청전	담앤북스
10	돈황본 육조단경(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3	절수행입문	교육원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4	뿌리를 담은 밥상	법송스님	자자
5	바다를 담은 밥상	법송스님	자자
6	아침을 담은 죽	법송스님	자자
7	차학개론	정영숙	차와문화
8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10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법정스님/최순희 사진	책읽는섬

"천년 지켜낸 절집으로 떠나라"



곱게 늙은 절집

심인보 글 · 사진

담앤북스

2만8000원

초판 후 20년 만의 개정증보판
다시 찾은 고찰 25곳 변화 더해
변화 속 자리 지킨 사찰 모습 담겨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효율과 속도를 좇는 시대, 쉴 곳조차 빠르고 간편한 곳을 찾아 헤맨다. 감각적인 문자와 동영상에 사로잡힌 눈을 내려놓고 무심해지는 순간이 그리울 때, '곱게 늙은 절'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쉼의 여백이 생겨난다. '곱게 늙은 절'이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문명의 편의가 끼어들지 않고, 불편함이 가진 미학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곳들이다. 그 한 예로 봉황산 부석사의 경우, 일주문을 지나 굽은 길을 오르면 봄에는 하얀 사과꽃 흩날리는 기다림의 길이,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 떨어지는 그리움의 길이 펼쳐진다.

천년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아가며 '곱게 늙은' 산사에 심인보 사진가의 시선이 멈췄다. 기업 CI 분야 아트디렉터였던 그가 30년 전 난치병 진단을 받고 무작정 개암사를 찾아가면서부터다. 그곳에서 '잘 늙은 절'의 푸근함에 눈 뜬 뒤 10여 년간 전국의 숨은 사찰을 찾아 사진과 글로 담아 〈곱게 늙은 절집〉을 펴냈다.

초판 이후 20년 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온 〈곱게 늙은 절집〉은 초판에 수록된 사찰 25곳의 현재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한 천년고찰의 풍경을 다시 찍고 문장을 고쳐 썼다. 여기에 안도현과 이규보 등의 시구와 스님들에게서 들은 전설과 사찰의 역사를 곁들여 깊이를 더했다. 책은 시멘트 흔적 없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곱게 늙은 절'을 비롯해, '해우하시지요', '풍경 속의 풍경', '이야기가 그리우면' 등 총 4개 장 470여 쪽에 산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낸다.

저자는 문득 슬픔이 내려앉을 때 불명산 화암사에 가보라고 권한다. '깊은 계곡이 산문이고 누각', '하늘이 천장이고 천장이 하늘'인 그곳에서 세상의 소란도 잦아드는 고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테니 말이다.



심인보 작가가 6월 27일 서울 성북동천에서 열린 개정증보판 출간 기념 사진전 및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전시작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담앤북스

또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들면 지리산 화엄사에 가자고 청한다. 저자에게 화엄사는 아름다운 명작이자, 국보가 네 개나 있는 보물창고다. 새벽 예불 후 들려오는 싸리비 비질 소리, 원통전 앞마당에 붉게 달아오르는 홍매화, 각황전 앞뜰의 석등은 참배객의 마음을 붙잡아두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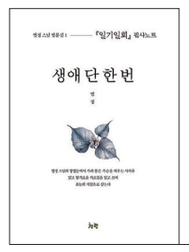
분주한 세상살이를 잠시 내려놓으려면 봉황산 부석사 안양루에 올라 발아래 풍경에 빠져드는 것이 좋다. 저자는 '산의 바다'와도 같은 겹겹의 능선에 온몸이 젖어 들어 헛헛한 시름을 단숨에 날려 보낸다고 설명한다.

책에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지 못한 곳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비판적 시각도 함께 담겨 있다. '불사'란 이름으로 구릉을 깎아 평지를 만들며 굽은 돌계단을 없애거나, 울창하던 숲길 위에 아스팔트를 덧칠해 버린 곳들을 짚어내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휘면 휜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기둥이 되고 보가 되어 세월을 버텨낸 절집 풍경을 보며 "반갑고 다행"이라는 감회를 전한다.

이렇듯 〈곱게 늙은 절집〉의 글과 사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세월을 품어 안은 고찰의 고요함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다. 굽은 기둥과 휘어진 문지방, 없는 듯 화려한 단청을 닮은 '곱게 늙은 절집'의 모습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다.

6월 27일에는 서울 성북동천에서 개정증보판 출간을 기념하는 사진전 및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전시는 심인보 작가의 사진 25점이 선보이며 7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손으로 새기는 가르침



생애 단 한 번

법정 스님

청향

1만8800원



진언명상록

덕일 정사

도서출판 진여

2만5000원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필사집이 연이어 나와 주목된다.

〈생애 단 한 번〉은 절판돼 만날 수 없었던 법정 스님의 첫 법문집 〈일기일회〉의 일부 주요 법문을 담은 필사집이다. 책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길상사의 정기법회를 비롯해 여름·겨울 안거 법문 등 총 32편의 법문 주요 부분이 역순으로 실렸다. 원불교 서울 청운회와 뉴욕 불광사 초청법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법문도 함께 게재됐다. 〈일기일회〉의 원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주요 구절을 직접 필사하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법정 스님 〈일기일회〉 주요 법문 수록
덕일 정사 백일불공 독송 · 필사 노트

책은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기 삶을 늘 주시하라는 뜻…자기 삶을 주시하고 있으면 고통과 불행이 따라오지 않는다" 등 매 순간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감정이나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자주적인 삶을 위한 스님의 당부도 이어진다. "궂은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디까지나 한때의 일일 뿐", "물질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주적인 삶을 이루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스님의 경책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기회다.

필사집을 따라쓰다 보면, 마음은 '당연하지 않은 삶'에 대한 감사로 귀결된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이기에 "내 안의 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도록 해야"하며, "남과 나누는 일을 통해 나 자신을 수시로 가꿔야 한다", "자비심이 곧 여래라는 말"도 깊이 새기게 된다.

〈진언명상록〉은 진각종 총인 덕일 정사가 펴낸 필사집이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불교명상법을 담은 이 책은 '진언명상록 100일 불공 독송·필사(1장)'와 '7자성(49일) 불공 독경·사경의 실행론(육자진언)(2장)'으로 구성됐다.

책은 독자가 내용을 읽고 따라 쓰며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공덕, 효과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육자진언을 되새기며 심인을 밝히고 탐진치를 물리쳐, 본심인 자성을 깨닫고 지혜를 원만히 성취할 것을 독려한다.

덕일 정사는 이 책을 통해 두 가지 수행법을 제안한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걷는 '걷기 진언염송 명상법'과 경전을 정성껏 따라 쓴 뒤 이를 소리 내어 읽는 '사경명상법'이다. 책에서 덕일 정사는 "진각종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불교"라면서 "이를 염송하면 모든 불보살에 귀명하는 공덕과 모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필사하는 독자의 편의를 돕고자 완전히 펼쳐지는 특수 제본을 적용하고 펜을 쓸 때 긁힘이나 번짐이 없는 고급 용지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배희정 기자

고려 불교·왕실 의례 속 향로 조명



고려시대 의례와 향로

이용진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원

시대 따른 향로 특징 · 가치 검토
"청동은입사향완 독보적 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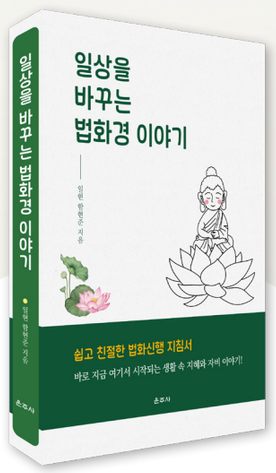
고려시대 최전성기를 누린 향로의 다채로운 면모를 조명한 학술서가 나왔다. 이용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 박물관장)가 펴낸 신간 〈고려시대 의례와 향로〉다. 책은 당대 불교· 왕실 의례에 쓰인 향로의 모양과 기능은 물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룬다.

책은 실물 유물과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총 5부에 걸쳐 향로 전통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저자는 역사상 가장 다양하고 독특한 향로를 사용한 시기인 고려시대에 주목한다. 당대 불교의례용으로는 거향로인 향완을 비롯해 사자진병향로, 연지형병향로, 걸어서 사용하는 현향로 등이 두루 쓰였다. 왕실 의례용으로는 자모수로, 정형향로, 청자동물장식향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저자는 은실로 범자와 연화문 등 불교적인 문양을 새긴 청동은입사향완을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수작이자 가장 불교적인 향로로 꼽았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향완이 조선시대로 계승돼 500여 년을 사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향로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책은 요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14세기 고려불화에 등장하며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지형병향로, 주변국에서도 널리 사용된 현향로 등도 함께 살펴본다. 배희정 기자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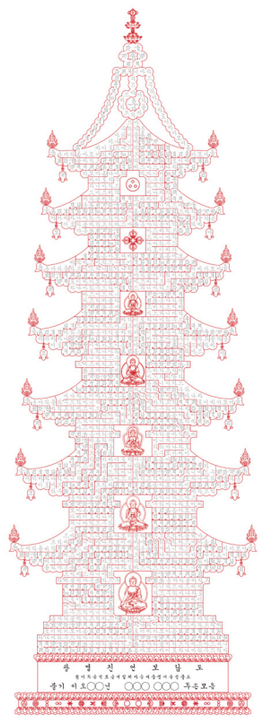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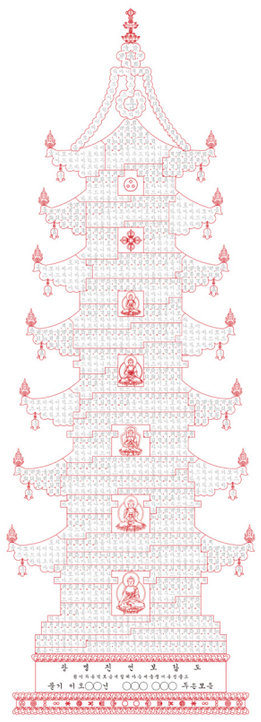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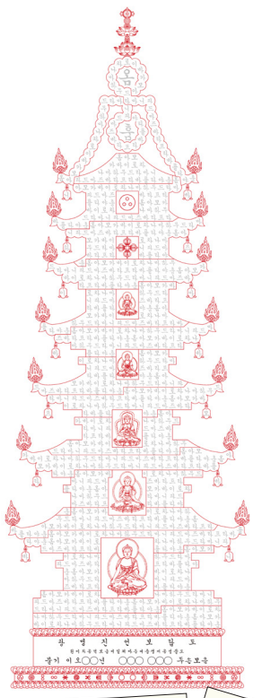
무명과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를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광명진언 사경 공덕!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3
한글 및 범어 길 따라 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2
한글 및 범어 구역 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1
한글 가로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은 단순한 필사를 넘어, 신심으로 한 층 한 층 '보탑(寶塔)'을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와 가족의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바꾸는 기적 같은 가피를 경험해 보세요.

행오 스님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이수자)
380×1036mm, 한지 사경
각 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